

화순교육청,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영재교육원 비전캠프' 실시

화순영재교육원 중등 신입생·화순 관내 희망 중학생 48명 참여 운영 서울대 사범대학 찾아가는 교육활동 16기 학생 35명과 멘토링 활동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30일 '2023.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화순영재교육원 비전캠프' 입학식을 실시했다. 2023학년도 화순영재교육원 중등 신입생과 화순 관내 희망 중학생 48명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 동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찾아가는 교육활동 16기 학생 35명과 함께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2023.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화순영재교육원 비전캠프는 모여봐요 법률의 숲(법), NONE리 아일랜드(논리), 미리캠퍼스(미디

어리터러시), 맘S터치(심리) 등 서울대학교 해당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강하면서 1:2 멘토-멘티 밀착 지도를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 동기과 학습 역량을 강화시켜줄 프로그램들로 설계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찾아가는 교육활동 16기 박태훈 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육과정과 교재, 수업 활동 및 모형까지 함께 모여 고민하고 만들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성공

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테니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이현희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서울대 멘토들의 눈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서울대 멘토들에게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교육청, '마음건강 치유 과정' 운영



나주교육지원청이 현장 근무가 많은 운전직·조리직 공무원과 민원인 응대가 잦은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코로나 우울,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

하는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마음건강 치유 과정'을 운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맥경화, 스트레스, 체성분, 활성산소 검진 ▲일대일 건강상담 ▲차분 명상을 통한 다도 체험 ▲아로마테라피, 온냉 치료, 한방치료, 족욕 체험 등이 진행되었으며, 전문적인 통합의학 치료가 이뤄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과정에 함께한 남평초 운전원은 "업무 특성상 학기 중 힐링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참여하게 돼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해소되는 것 같으며, 나아가 친절하고 적극적인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전남교육청, 2023 기초학력 전담교사 직무연수 운영

개별화 수업 통한 문해력·수리력 지도 전문성 함양 모색

전라남도교육청이 1월 30일 ~ 2월 3일 4박 5일 간 나주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에서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대상으로 '2023.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해력·수리력 지도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문해력·수리력 통합 지도 방법과 연차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연수 과정

을 개발해 운영한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신규 기초학력전담교사는 "올해 처음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되어 문해력·수리력 개별화 수업 실행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연수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에게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해력·수리력 지도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문해력·수리력 통합 지도 방법과 연차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김재환기자

곡성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전시공간 명칭 공모

곡성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동 내에 신설된 전시공간의 명칭을 오는 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이번 명칭 공모 대상 공간은 지난 12월, 실재배치 및 보수공사를 통해 휴게실에서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관내 학교 학생 작품, 지역 작가 및 강좌 수강생 작품 등 지역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3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곡성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민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1차 심사를 통해 3점을 선정하고 이용자 투표를 통해 최종 1점을 선

정한다. 최우수 1명에게는 곡성지역상품권 10만원, 2·3등에게는 각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응모는 곡성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회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전시공간 명칭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교육문화회관 사무실(061-363-0672)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광주송정도서관, '2023학년도 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교육' 학습자 모집

1~3단계 과정, 각 단계별 20명씩 총 60명 모집

광주송정도서관이 2월 1일~28일 '2023학년도 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교육'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교육은 1~3단계로 운영되며 각 단계별로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2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신분증을 지참해 학습자 본인이 직접 광주송정도서관 2층 문헌정보과를 방문 후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각 단계별 교육기간은 1년이다. 1단계는 초등 1~2학년, 2단계는 초등 3~4학년, 3단계는 초등 5~6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오는 3~12월 주 3회(화·수·목)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하루 2시간(단계별 총 240시간) 수업으로 운영된다.

학습자들은 최종 반 편성 전 진입 평가를 치른다. 결과에 따라 2단계 또는 3단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3단계 최종 이수 시에는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교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광주송정도서관은 각 단계별로 국

어·수학·사회·음악·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성인문해 백일장 및 시화전 대회 출품, 현장 체험학습 등 참여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주송정도서관 김정희 관장은 "광주지역 문해교육 대상자가 2만6,000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초등학교학력인정 성인교육이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 미소지 성인 및 그 가족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